

강원경제인페스티벌 성료

1면에서 계속

시상식 후에는 최돈진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회장이 청년실업난을 극복하기 위해 도내 중소기업들이 앞장서서 기존 채용인원보다 1명을 추가로 고용하는 '청년1+채용 운동' 참여 호소문을 낭독했다.

이어 박숙철 CnE혁신연구소장이 '이제는 창조경영이다'라는 주제로 창조강연을 펼쳤으며 김병조(개그맨) 조선대 교육대학원 교수가 '명심보감에서 배움시다'라는 제목으로 특별강연을 했다.

행사 이틀째인 11일에는 양희봉 청장의 조산특강이 열리며 지역 경제인들을 위한 골프대회도 함께 개최된다.



◇2015 강원경제인 페스티벌 및 제9회 강원경제인상 시상식이 10일 정선 하이원호텔에서 열려 이희중 강원일보사장, 양희봉 강원지방중소기업청장, 김시중 도의장, 전정환 정선군수를 비롯한 참석인사들과 영예의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선=박승선기자

경제야, 신발끈 다시 조여매자

2015 강원경제인 페스티벌

경제인 300명 새 도약 다짐
강원경제인상 시상식 열려
오늘 친선 골프대회 개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강원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창간 70주년을 맞은 강원일보는 강원지방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10일 정선 하이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15 강원경제인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 관련기사 3·8면

이날 행사에는 지역경제인들과 각 시·군, 중소기업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해 강원경제 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개막식 후 열린 제9회 강원경제인상 시상식에서는 올해 대상을 차지한 김수훈 티에스(주) 대표가 상패와 함께 상금 5,000만원을 받았다. 신기술인상과 건설인상 수상자인 임성기(주)보고 대표와 염돈설 토진종합건설(주) 대표에게는 각각 상패와 2,000만원의 상금이 돌아갔다. 이미옥(주)해송KNS 대표는 특별상을 수상, 1,000만원의 상금 및 상패를 수상했다.

이희중 강원일보사장은 "강원경제는 늘 어렵고 척박한 환경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 왔다. 힘들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이 자리에 모인 경제인들의 노고와 희생 덕분에 강원경제는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신발끈을 풀끈 조여매고 창조와 혁신, 도약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 괄목할 성장을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희봉 강원지방중소기업청장은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강원경제인 여러분의 역할과 책임이 가장 중요하다"며 "강원경제를 위해 노력하신 수상자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보경기자 bkk@kwnews.co.kr

2면에 계속

/ 2015 강원경제인페스티벌 강원경제인상 수상 소감 /

**“기술력 갖춘 초심경영
글로벌 강소기업 우뚝”**

대 상

김수훈
티에스㈜ 대표



2015 강원경제인상 대상 수상자인 김수훈 티에스(주) 대표는 “2004년 작은 월세 사무실에서 3명으로 시작했던 사업체가 올해 경림 11주년을 지나 현재 80명의 직원이 함께 일하는 공룡체가 되었다”며 “경영년에 문을 닫는 중소기업이 많지만 30년을 넘어 100년을 경영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대표는 “체계적인 경영 시스템이 갖추어진 회사, 글로벌 수준의 품질 시스템을 갖추고 선형기술 개발 및 지식재산권 보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환경과 여건을 맞지 않고 단점을 역점을 스스로 이겨내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마음, 기술을 향한 뜨거운 열정, 고객을 향한 일관된 마음으로 나아가겠다”며 “세계 전기자동차 시장의 표준을 구축하고 꾸준히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과 국가에 기여하는 글로벌 강소기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과감한 신기술 개발로
잠수정 선두업체 도약”**

신기술인상

임성기
㈜보고 대표



2015 강원경제인상의 신기술인상을 받은 임성기(주)보고 대표는 “오늘도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있는 많은 도내 중소기업 중 신기술인상을 수상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임 대표는 “회사의 경영철학인 도전정신으로 잠수장비, 소형특수선박, 유인소형잠수정 등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기술력 및 창조성에서 경쟁우위를 갖기 위해 그동안 노력해왔다”며 “국내 최초로 대한민국 해군에 고속단정을 제조 납품해 지금까지 소형특수선박을 자체 설계하고 제작하는 등의 노력이 자랑스러운 역사가 될 것을 믿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앞으로도 세계 소형잠수정 선두업체의 하나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신기술 개발에도 더욱 앞장설 것”이라며 “영광스러운 이 상이 글로벌 기업을 향한 초심이 될 것임을 확신하고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함께 극복한 임직원들과 수상의 기쁨을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모범기업 발판 만들 터”**

건설인상

염돈설
토진종합건설㈜ 대표



2015 강원경제인상 건설인상을 수상한 염돈설 토진종합건설(주) 대표는 “강원일보사가 주최하는 경제인페스티벌에서 건설인상을 수상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힘든 상황에서 건설인상 수상이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염 대표는 “토진종합건설은 2002년 설립해 40여명의 직원이 함께 부실 없는 시공과 강원건설 발전에 노력하는 등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생각한다”며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군 대관령면에 본사가 될 것을 믿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에 모범적인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지역과 강원건설에 꼭 필요한 건설업체로 향상 기업을 할 수 있는 경영을 해 나가도록 전 임직원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임직원 모두 뚝뚝 뚫쳐
강원 경제살리기 앞장”**

특별상

이미옥
㈜해송KNS 대표



특별상을 수상한 이미옥(주)해송KNS 대표는 “강원일보 창간 7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에 강원경제인상 특별상을 수상해 영광스럽다”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한 선배들 경제인들에게 송구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묵묵히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회사 경영에 전력을 다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특별상은 앞으로 여성경제인으로서 강원경제 발전에 더 노력하려는 당부의 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지역경제 발전이 남다른 관심과 격려, 희망을 주고 있는 강원경제인페스티벌 주최 및 후원사의 관계자를 비롯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친화적인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한 전 직원에게 이번 특별상 수상의 영광을 돌린다”며 “회사의 지역경제 발전의 초효모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목표로 지속 성장 가능한 회사가 되기 위해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원도, 내년 예산 6조2700억원 확보

목표초과 했지만... ‘올림픽’ 삭감

〈6조2000억원〉

강원도가 내년도 예산을 초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올림픽 관련 예산이 삭감돼 대회 준비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2016년도 예산안을 확정된 가운데 강원도는 내년도 예산으로 6조2700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당초 목표액(6조2000억원)보다 조금 상회한 액수다.

지난 6월 예산안 1차 심의 때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정부 및 국회에 예산편성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철도와 도로 등 SOC(사회간접자본) 분야의 예산은 올해보다 890억원이 증액됐다. 원주~강릉 철도 1조1727억원을 비롯해 동해중부선 포항~삼척 6169억원, 중앙선 원주~제천 1918억원, 동서고속도로 동흥천~양양 3285억원, 동해고속도로 삼척~속초 1193억원, 제2영동고속도로 2021억원 등 총 3조2513억원이 반영됐다.

대회준비 차질 우려 목소리 “국회 심의과정서 반영 노력” 도로 등 SOC는 890억 증액

반면 2018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예산은 삭감됐다. 문화올림픽 예산 100억원은 전액 빠졌다. 문화올림픽 예산은 당초 기획재정부가 50억원을 반영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내년 10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 500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이 도의 구상이다. 그러나 이번 삭감으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경기장 신설 및 진입도로 건설 등 시설 예산도 도의 요구액(4262억원)보다 감액된 3391억원만이 반영됐다.

강원도의 3대 현안 사업의 희비도 엇갈렸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와 여주~원주 전철사업은 관련 예산이 반영된 반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예산은 제외됐다.

정부는 예타가 진행 중인 SOC 사업을 위해 수시사업비로 120억원을 편성했다. 수시사업비는 예타를 통과한 사업에 우선 배정된다. 때문에 춘천~속초(44억원) 및 여주~원주(15억원)는 예타만 통과되면 배정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비는 정부가 국비 반영에 난색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블카 설치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잇따르면서 국비 지원의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역 현안 사업의 경우 춘천 레고랜드 진입교량은 도의 요구액(115억원) 전액이 반영됐다. 폐광지역 관광상품 개발사업(139억원),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62억원), 고성 국회의정연수원 건립(134억원) 등의 예산도 편성됐다.

도 관계자는 “문화올림픽과 오색케이블카 설치 예산은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면서,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에 반영된 도 관련 예산의 삭감을 막는 한편 감액된 예산의 증액 및 신규 반영을 위해 정치권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희훈기자 hoonw@

국토부 내년 SOC 예산 20조5000억원

내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사회간접시설(SOC) 예산이 20조5000억원으로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평균(20조7000억원)보다도 2000억원 줄었다. 올해 SOC 예산(21조7000억원)보다 5.5% 추정 포함 예산(23조)과 비교하면 10.9%나 급감했다. 주택·주거급여를 포함한 국토부 전체 예산안은 총 21조7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22조5000억원)보다 3.8% 줄었다.

유성용 국토부 정책기획관은 "지난해 경기 활성화를 위한 추경 편성 등으로 SOC 예산이 늘었지만 내년부터는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정상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부문별로는 도로(-7.8%)와 도시철도(-39.7%), 수자원(-4.3%), 지역·도시(-5.9%), 산업단지(-29.2%) 예산이 줄어든 반면 철도(0.6%), 항공·공항(6.7%), 물류(6.0%) 등이 증가했다.

도로, 철도, 주거급여 등 75개 국정 과제 지역공약 사업에 6조9000억원이 지원된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1343억원), 해남산단 외곽도로(2억원), 격포~하서(207억원), 진상~하동(1204억원) 구간 국도 등 4건은 내년에도 완공된다.

신규 사업은 도로 22건(359억원), 철도 2건(221억원)으로 올해보다 도로는 13건, 철도는 5건이 각각 줄었다. 총사업비 1조 4960억원 규모의 김포~포주 고속도로(내년 예산 54억원), 1조4247억원의 광주~강진 고속도로(100억원) 등 1조내대 신규 고

수자원 2조1749억원 편성
올름·혁신도 등 소형 공항
내년 설계·착공 소요 반영

속도로 사업이 눈에 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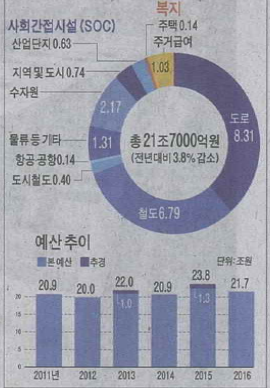
청주공항 평행 유도로 설치(340억원),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BEMS·88억원) 등 국토부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던 사업 일부는 최종 정부 예산안에서 빠졌다.

도로 - 8조3149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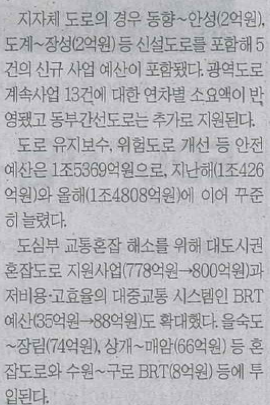
내년 도로 예산은 총 8조3149억원 규모다. 고속도로·국도 건설사업은 계속 사업 위주로 투자하고 완공물량이 늘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인 광주~강진 고속도로를 비롯해 김포~포주, 창녕~현풍 확장(총사업비 1175억원, 예산 150억원) 등 신규 고속도로 3건이 포함됐다. 내년부터는 고속도로의 설계비(100~60%)로, 영업소·휴게소(40~0%)에 대한 출자비용이 조정된다.

충청내륙1(7억원), 삼자현터널(4억원) 등 국도가 신설되는 등 14건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돼 최소 착공비가 반영됐다. 민자도로는 서울~문산(1100억원)~6987억원 등 계속사업의 적기 준공 소요를 반영했고, 이천~오산(644억원), 봉담~송산(709억원) 등 2건의 신규 사업이 추진된다.

2016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단위·조별



예산 추이



철도 - 7조1828억원

도시철도를 포함한 철도 예산은 총 7조1828억원으로 올해(8조1578억원)보다 무려 1조원가량 줄었다. 철도(6조7856억원)가 소폭 늘었지만 도시철도(3972억원) 분야가 급감했다. 스크린도어 설치사업이 올해 추경에 전부 반영됐고 대구호선 확장사업이 올해 완공되기 때문이다.

신규 사업으로는 총사업비 1171억원 규모로 지역공약 사업인 대구권 광역철도(168억원)와 추정사업비 8329억원인 신림선 경전철(53억원)이 추진된다.

내년 착공 예정인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300억원)~5000억원이 확대된 것을 빼면 고속철도 예산(5312억원)~5500억원)은 90%가량 줄었다. 일반철도의 경우 원주~강릉 철도건설(1조2120억원)~8807억원, 도담~영천 복선전철(3100억원)~6000억원 등 공사 중인 22개 계속사업 예산이 반영됐다.

광역철도는 수원~인천 복선전철(1467억원) 등 8개 계속사업, 도시철도는 서울 9호선 3단계(900억원) 등 9개 계속사업을 각각 지원한다.

노후시설 개량 등 철도 안전투자를 늘려 4488억원을 투입한다. 이 밖에도 동력분산식 준고속 차량인 EMU 차량(49억원) 등 수송차량 구입비도 올해 434억원에서 내년에는 1149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수자원 - 2조1749억원

공항·지역 - 1437억원 7429억원
수자원 예산은 2조1749억원으로, 댐 건설 및 치수능력증대 예산(2979억원)

이 700억원 넘게 줄었다.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에 따른 금융비용(3090억원)~3010억원과 임금 일부(390억원) 지원을 빼면 대부분 예산이 감소했다.

국가하천정비(4338억원)~4250억원), 지방하천정비(6754억원)~6305억원) 사업은 치수사업 위주로 편성하면서 예산이 줄었다. 한탄강 홍수조절댐은 내년 완공(1607억원)을 반영했고 3개의 소규모 댐은 착공비를 반영(28억원)~187억원했다.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 및 공급용수도 건설예산을 확대(311억원)~785억원했다. 포함공급용수도 노후관 개량(2억원), 영남내륙권(II) 광역상수도(2억원), 장항국가생태산업단 용수공급(2억원) 등이 새로 반영됐다. 지하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투자(129억원)~136억원)도 늘었다.

항공·공항 예산은 1437억원으로 올해(1360억원)보다 소폭 늘었다. 울릉도(85억원), 흑산도(20억원) 등 소형·공항의 내년 설계·착공 소요를 반영했고, 청주공항을 4급 항공기 교체공항으로 지정·운영하기 위한 활주포 포장(13억원) 예산도 반영됐다.

지역 및 도시 예산은 7429억원으로, 낙후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성장축진지역(2091억원)과 그린벨트 지원사업(1321억원)이 올해 수준으로 반영됐다. 쇠퇴한 일도심의 기능회복을 위한 도시활력 증진사업(1452억원) 등도 지속 지원한다.

김태형기자 kth@

해수부 내년 예산 4조8103억원

부산 북항·영종도 매립지 재개발 등
항만SOC 분야에 2조3520억 편성

부산 북항, 인천 영종도 매립지 재개발 등 내년도 해운·항만 분야 SOC(사회기반시설) 투자가 늘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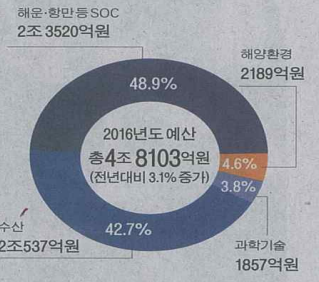
해양수산부는 내년 예산·기금안 규모로 올해 총지출보다 3.1%(1458억원) 증액한 4조8103억원을 편성했다고 10일 밝혔다.

부문별로 보면 해운·항만 등 SOC가 올해보다 2.8% 증가한 2조3520억원이다. 항만 재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항만 재개발 재정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부산 북항, 인천 영종도 재개발은 설계비로 각각 56억원과 13억원을 반영했다. 신규 항만시설 건설로 유류화면 기준 항만시설에 해양플랜트, 요트·마리나 등 신해양산업을 집적·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6억원)도 새로 편성됐다. 해양플랜트 분야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 구축(70억원), 해상부유식 LNG 병커터 기술개발(65억원), 해양플랜트 종합훈련장 설립(14억원) 등에 투자한다. 해양플랜트 종합훈련장은 총사업비 200억원을 들여 2020년까지 총 86개의 교육과정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해양 신산업 투자 분야는 크루즈(634억원), 마리나(163억원), 해양신중수 산업지원센터 조성(10억원),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 구축(70억원), e-내비게이션(85억원) 등이다.

세월호 사고 같은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해양안전 분야 예산 지원을 강화했다.

세월호 인양과 미수습자 유실방지에 595억원을 편성했다. 연안외곽선·해안안전관련 예산을 포함한 세월호 후속조치 예산은 올해보다 14% 증가한 1416억원



이다. 아울러 카페리와 초고속신선 조속 추진을 위한 연안외곽선 현대화 편드를 100억원 규모로 내년 예산에 새롭게 조성한다. 50% 출자하는 정부출자 모태펀드와 민간자금을 결합해 자금을 조달한다.

해양환경 분야는 올해보다 8.4% 늘어난 2189억원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연료작물 유입방지·처리 241억원,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건설·연안정비 599억원, 해양생태계 보전 167억원 등이다.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주범인 페스티로폼의 통합관리체계(5억원)도 만들기로 했다.

임기택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당선을 계기로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IMO 활동강화·해사산업 활성화 예산을 29억원에서 59억원으로 106.4% 증액했고,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수산업학 유지를 위한 예산 3억원을 반영했다.

김태형기자 kth@

환경부 내년 예산 5조6808억원

상하수도·수질 개선 사업 '구조조정'
하수관거 개·보수 투자는 대폭 확대

내년에는 하수관거 등 환경분야 사회간접시설(SOC) 예산도 구조조정을 거쳐 축소된다.

환경부는 내년 예산안인 5조6808억원으로, 올해보다 0.7%(383억원) 감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부문별로는 사업규모가 가장 큰 상하수도·수질 분야가 3조2432억원으로 2572억원(7.0%) 줄었다. 주대역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은 "수질개선 SOC사업에 대한 신설 투자는 구조조정을 하고 농어촌지역 등 낙후지역의 하수도 투자는 늘렸다"고 말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888억원(8727억원)~7839억원) 줄었고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이 559억원, 도시침수대응사업이 357억원 감소했다. 이 사업들은 국고 지원 비율이 10~70%에 달한다. 반면 하수관거 개·보수 투자(1108억원)~2162억원)를 대폭 확대하고, 싱크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하수관로 정밀진단에 276억원을 투입한다.

상하수도를 제외한 나머지 대기(26.2%), 폐기물(15.6%), 환경정책(10.6%), 자연(6.3%) 부문은 모두 증액됐다.

환경오염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구제하기 위한 구제급여 예산 500억원을 신규 편성했고, 화학사고 발생 시 대응 예산을 전년 121억원에서 174억원으로 늘렸다.

아토피와 같은 환경성 질환의 원인 규명을 위해 아동 10만명에 대해 20여년에 걸친 장기 '어린이 출생 코호트' 연구(31억원)도 진행한다.

친환경차, 물산업 등 유망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도 확대한다.

친환경자동차 구입 시 전기차(EV)에 대당 1200만원,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에 500만원, 하이브리드차(HEV)에 100만원의 보조금을 각각 지원한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수는 올해 3000대에서 내년 8000대로 늘어난다. 전기차에 대한 대당 보조금은 올해 1500만원에서 300만원 줄지만 지원 대상은 늘어나게 된다.

플러그인(충전식)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대당 500만원의 보조금이 새로 반영됐다. 보조금 지급 대수는 3000대이며 예산은 총 1500억원이다.

대통령 공약사업인 물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예산은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 1036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김태형기자